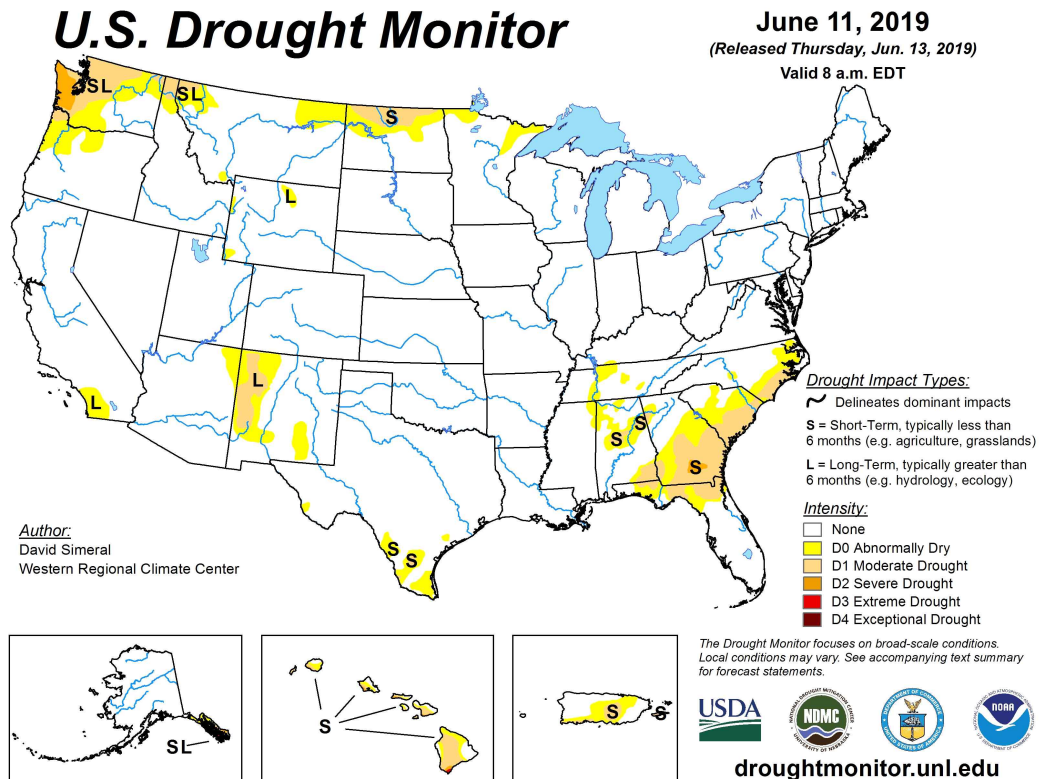


6월 1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64)

□ 미국 기후 현황(6/9~6/15)

동부 옥수수 벨트에서는 호우가 늦철 옥수수와 콩의 파종을 계속 늦추고 있는 반면 중서부 위쪽은 적당하게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의 넓은 구역에 내린 주간 총강우량은 1-2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한편 대평원에 걸쳐서 드문드문 내린 소나기가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적당히 유지시켜주었고, 지역적으로는 과도한 곳도 있었다. 대평원 남동부에 걸쳐서 몇 곳은 가장 심하게 젖은 조건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캐나다 국경을 따라서 그 근처의 작은 지역에 가뭄이 제한적으로 있었다. 먼 동쪽에서는 비가 충분히 내려서 남동부 특히 남부 대서양 주들의 가뭄을 더 덜어주었다. 플로리다에서부터 중대서양 연안 평원까지 많은 곳에서 총강수량은 2-4인치 또는 그 이상이었다. 반면에 아래쪽 미시시피 계곡과 그 인근은 건조한 날씨로 야외 작업하기에 좋았다. 그 밖에 극서 지방은 이른 철에 계속된 고온으로 북서부의 겨울밀 성숙을 비롯하여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태평양 연안 주들의 여러 곳에서는 주간 평균온도가 정상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았으나 중앙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까지 뻗어있는 넓은 지역에서는 정상보다 5° F 이상 높았다. 로키 산맥 동쪽은 대체로 선선한 날씨로 인해 여름 작물의 출현과 성장이 늦어졌다.



## □ 농업 현황 요약(6/10~6/16)

강우는 대체로 미국 동부 절반으로 한정되었다. 비는 중대서양, 오대호, 남동부 일부에서 가장 심했고 일부에서는 3인치 이상 내렸다. 나라의 많은 곳에 걸쳐서 정상보다 낮은 온도가 눈에 띄었다. 대평원과 미시시피, 오하이오 계곡의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6° F 낮은 온도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아이다호와 태평양 연안 주들의 일부에서는 정상보다 최소 6° F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6/9~6/15)

■ 유럽: 서유럽과 북유럽 일부에는 심한 비가 내린 반면 유럽대륙의 남부 일부에서는 열과 국소적인 건조가 대조적이었다. 폭풍전선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에 전반적으로 10-125 mm의 비가 내렸는데, 비가 가장 심한 지역에서는 성숙 중인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들의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머지 북유럽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심한 소나기가 (10-75 mm)가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어서 생식 또는 종실비대 중인 겨울밀과 유채에게는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준 반면,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에서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정상보다 최대 8° C 높음) 작물의 물 수요가 올라갔다. 먼 남쪽, 헝가리와 발칸 반도에서는 뜨거운 날씨가 (30-34° C) 겨울 작물의 성숙과 건조를 앞당겼지만, 영양생장 중인 여름 작물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뉴브강 계곡 아래쪽에서는 소나기와 뇌우 (10-60 mm)가 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한편 옥수수과 해바라기에 필요한 수분을 지역적으로 공급해주었다. 이탈리아의 많은 곳에 걸쳐서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30° C 이상의 고온) 옥수수, 콩, 해바라기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그렇지만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수분 공급은 여전히 좋은 편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가뭄이 계속 되서 종실비대와 성숙 중인 겨울 곡물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여름 작물의 발달도 방해했다.

■ 구소련(서부):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특히 흑해연안에서 떨어진 재배 지역에서 작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서러시아에는 고기압이 한 지역에 닿을 내리고 있어서 지역적 규모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서부와 남부에서는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3-8° C 높았고 낮 최고 온도는 35° C 또는 그 이상이어서 늦게 발달하고 있는 겨울밀의 잠재 수확량을 삭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른 철에 발생한 열이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름 작물들은 아직 온도에 민감한 생식 발달 단계에 있지는 않았다. 흑해에서 발생한 수분이 북쪽으로 소나기와 뇌우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강우량은 변동이 컸고 (미량-45 mm), 대체적으로 해안에 인접한 농지와 북쪽으로는 높은 곳으로 제한되었다. 수분 부족은 러시아, 특히 북카프카즈 구역에서 심해지고 있는데 불가 지역의 남부 구역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지역의 30일 총 강우량은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동아시아: 남중국에서는 계절적으로 비오는 날씨가 계속되어 (50-200 mm 또는 그 이상) 영양생장 중인 단작 벼에게 필요한 평균 수분량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강우량이 최대였던 남동부에서는 조생종 벼의 성숙을 늦추고 있다. 북동부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서 (25-50 mm,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서쪽 끝에 있는 도(道)들과 내몽골의 인근 구역에서는 이보다 적음) 영양생장 중인 옥수수, 콩, 벼에게 좋은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다. 한편 뜨겁고 (35° C) 건조한 날씨는 동중국에서 밀의 성숙과 유채의 수확을 촉진했으나 관수가 되지 않는 여름 작물



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은 감소시켰다. 북일본과 한반도의 많은 곳에서는 정상보다 건조한 조건이 계속되어 영양생장 중인 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을 낮추고 있다.

■ 호주: 지난주 단비가 내린 뒤로 가뭄에 에워 쌓였던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되돌아왔다. 전반적인 건조로 밀과 기타 겨울 작물에 필요한 표토 수분이 줄어들어서 지역에는 작물 전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에서는 남동호주와 서호주 전반에 호우가 내려서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비는 겨울 작물의 발아, 출현, 활착을 도와서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대체로 밝혀주고 있다. 서호주의 평균 온도는 정상 근처였고 남부와 동부는 정상보다 2-4°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의 동부 농장 지대에 다시 소나기가 내려서 여름 작물의 수확은 늦춰지고 있지만, 겨울 곡물의 활착에 아주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엔트레 리오스’ 주변과 동쪽으로 우루과이까지 총 10-50 mm의 비가 내렸다. 이 비는 수주 간 가을 포장 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건조가 지속된 후에 내렸다. 반면에 서부와 북부 작물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야외 작업을 돕기도 했고 목화가 성숙하는데 호조건을 제공했다. 그 지역의 남쪽과 서쪽 구역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부터 살타까지) 주간 평균 온도가 정상보다 1-2° C 높았고 북동쪽에서는 (코리엔테스와 인근) 정상보다 1-8° C까지 높았다. 결빙은 생산 지역의 남부와 북서부 먼 곳에 제한적으로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은 6월 13일 현재 각각 59, 100% 수확되었고 밀은 작년 추이와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31% 파종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남부, 북동부의 주요 농업지대는 따뜻하고 햇볕이 많은 날씨가 우세하여 여름 밭 작물의 성숙을 진전시켰고, 전반적으로 야외 작업을 하기에 좋았다. 생산량이 많은 거의 모든 농지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최남단의 ‘리오 그란데 도 술 (4-25 mm)’ 과 북동 해안 (10-50 mm 또는 그 이상)을 따라서 내렸을 뿐이었다. 주간 평균 온도는 남브라질은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 과 ‘산타 카타리나’) 정상보다 5-7° C 높았고, 다른 지역은 정상보다 2-5° C 높았다. 낮 최고 온도는 해안 주들에서는 섭씨 20도 대의 상위에 있었고, 전통적으로 더운 내륙 농장 지대에서는 섭씨 30도 대의 중반까지 있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로 심은 옥수수는 6월 10일 현재 12%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50%가 성숙 중이었다. 한편 밀은 74% 파종되었다.